



장곡리에 있는 밤나무
무슨 사연이 그리도
많이 걸려있기에
매디 매디마다
굽어지고 휘어져 아프다
허공에 떠도는 죽은자의 애환
가지마다 주렁주렁
쪽빛으로 물든 하늘을 무대삼아
밤낮없이 춤추는 장곡리 밤나무
죽은 자의 애환을 듣는 당신은
성자임에 틀림없다

성자가 된
장곡리 밤나무
2025. 1. 5
장곡리 도론열 밤나무
글/사진 시인 고기석

Revision #1

Created 18 February 2025 09:54:31 by []

Updated 18 February 2025 10:04:59 by []